낙태아 기준 사람평가 세 등급

(전도서 6:1~12)

3.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4.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5.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6. 그가 비록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낙태아 기준 사람평가 세 등급>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낙태아 기준 사람평가 세 등급'
"맹구우목(盲龜遇木)"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는지요?
'맹구'는 눈이 보이지 않는 거북이라는 뜻이고 '우목'은 우연히 나무를 만난다는 뜻입니다. 즉 눈이 보이지 않는 거북이가 우연히 나무를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석가모니가 중생들 앞에서 한 설법입니다.
온 땅이 다 바다로 변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 바다에 수명이 무한한 눈 먼 거북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 거북이가 바다 속에서 헤엄치다가 숨을 쉬기 위해서 100년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옵니다. 지구 전체가 바다인 상황에서 이 거북이가 떠돌아다니는 판자 조각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고, 심지어 판자에 있는 구멍에 머리를 넣을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확률을 비유로 말한 이유는 불교에서 믿는 환생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죽은 뒤에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확률이 맹구우목처럼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는 인연을 맞이해서 어머니 뱃속에 임신이 되었다가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사산아나 유산이나 의도적으로 낙태된 낙태아들의 혼을 달래는 위령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맹구우목의 희박한 확률로 인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못했으니 그 억울함과 분노를 위로해주지 못한다면, 그 뒤로 태어날 아이들의 생애까지도 어렵게 되리라는 생각에서 넋을 달래기 위한 위령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꼭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낙태된 자들을 생각하면 누구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어쨌든 어머

니 뱃속에 잉태가 되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 빛을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갑절을 살면서 백 명의 자녀를 낳는 사람보다도 낙태된 자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낙태된 자가 더 나으니 이제부터 다 낙태를 시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장수하고 많은 자녀를 가진 자의 유복함은 낙태된 자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인데 대체 어떤 의도에서 이러한 말을 했던 것일까요?

본문 3~4절을 보면 장수하고 많은 자녀를 가진 자보다 낙태된 자가 나은 이유를 평안함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이라는 말은 천 년의 갑절인 이천 년을 장수하고 백 명의 자녀가 있더라도 정작 만족 없이 살아온 삶의 성격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많은 문제 가운데 평안함이 없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5절의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고 하는데 낙태된 자의 평안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가치관으로 보면 인간을 낙태된 자를 기준으로 낙태아가 있고, 낙태아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낙태아보다 나은 사람의 세 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낙태아의 존재의 특징은 빛을 못 본 존재로 규정합니다. 빛을 못 보는 것이 평안함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고, 반대로 빛을 보는 것이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독특한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빛은 곧 보는 것입니다. '빛을 알지도 못하나'라는 말은 평안을 위해서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의 차원에서 빛을 보면 볼수록 평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낙태아가 보지 못한 빛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낙태된 자들을 안타까워하며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태어나는 것을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로 빛을 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빛을 보기 때문에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낙태된 자가 더 낫다고 한 것일까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빛으로 보여서 눈으로 보는 것들이 마음으로 쇄도해 들어오고, 마음은 그것들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아 요

동치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로는 영혼을 채울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눈으로 보는 것들 중에 가질 것을 찾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음 안으로 쇄도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에 들어온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게 하므로 오히려 마음의 평강이 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읽지 않은 말씀의 부분을 보면 재물과 부요와 존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빛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쇄도해 들어오면서 마음에는 식탐이 생깁니다. 많이 가져서 만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햇빛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을 마음에 담게 될 때에 여지없이 낙태아보다 못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낙태아처럼 햇빛을 보지 못했다면 사로잡히지도 않았으리라는 것이고, 사로잡힐 바에야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으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빛을 보면서 눈으로 보는 것들이 마음으로 들어오고 들어온 대상을 직접 손에 쥐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삶에는 평안이 다 깨어집니다. 즉 평안을 잃은 삶을 살 바에야 차라리 아무것도 보지 못한 낙태아가 낫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 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자'는 잠언에서 솔로몬이 가지고자 했던 자아의식이 아닙니다. 잠언의 지혜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처신하는 사람이었다면,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자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잘 처신하는 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 처신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이것이 소용없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낙태아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재물을 많이 벌려고 하는 자도 낙태아보다 못합니다. 결혼해서 행복하려 하고 자녀를 잘 키워 행복하려고 합니다. 혹은 친구들을 통해 행복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낙태아보다 못한 삶입니다.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못해서 눈으로 보지 않았더라면 재물이나 부요나 존귀로 마음을 채우려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상 70억 인구 중에서 낙태아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혜자 솔로몬의 관점에서 보자면 비록 태어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 사는 것은 차라리 낙태아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낙태아보다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내게 기쁨을 줄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찾고 또한 그것을 탐하며 사는 평안 없는 삶이 바로 낙태아보다 못한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낙태아보다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햇빛이 비치는 세상에 태어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눈을 감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낙태아만도 못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을 모두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들 중에서 선택하여 추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입니다. 이것들을 얻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려고합니다.
이것이 낙태아보다도 못한 수준이기에 최소한 낙태아만큼이라도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낙태아처럼 되어야 합니다. 낙태아가 햇빛을 못 본 것처럼 세상에 대해 마음의 눈을 감는 것입니다. 야심을 갖고 비전을 갖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눈을 통해 들어온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이상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닫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낙태아와 같은 수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낙태아보다 나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마음이 보아야 할 것은 하늘빛입니다. 하늘빛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 하늘빛에 의해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살아있을 동안에 이렇게 마음으로 하늘빛을 보아야만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바로 낙태된 자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의 70억 인구의 거반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들 이외는 낙태아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은 끊임없이 햇빛 때문에 눈에 보여서 마음으로 쇄도해 들어오는 세상의 가치에 대해 십자가로 문빗장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동안에 마음에 자녀가 들어옵니다. 자녀의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요동칩니다. 자녀의 상황이 잘되면 마음이 좋고, 안 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마음이 좋을 수는 있어도 본래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진 마음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소원대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을지라도 이것으로 마음이 만족하지 않

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린다’라는 말은 내게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없는 것과 똑같은 아무소용도 없는 것을 위해서 평생을 애를 쓰다가 죽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쓰지도 못한 채 타인에게 다 넘기고 죽는 예가 허다합니다. 설령 자녀에게 물려주었다고 할지라도, 자녀의 마음이 그로인해 만족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는 재물과 부요와 존귀는 있으나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명성을 향해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여기는 낙태아 수준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낙태아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마음 안에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눈이 세상에 대해 장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햇빛이 비치는 세상을 향하여 장님이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햇빛이 비치는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햇빛 때문에 내 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은 떠 있을지라도 마음의 눈을 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장님 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 하늘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태어나서 하늘빛을 보지 못하고 하늘빛으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낙태된 자만도 못하기 때문에 우선 낙태아만큼이라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들에 대해 마음의 눈을 감고 장님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음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낙태아를 기준으로 한 세 등급에서 낙태아만도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낙태아와 같이 되고 또 낙태아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함으로 햇빛이 비추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음 안으로 쇄도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빗장을 닫아걸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는 장님이 되고 하늘빛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로 만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 육체의 눈이 보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총 쏘듯이 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